

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**고린도전서 11:23~30.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할 때,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고쳐주실 것이다. (20~25분)**

성찬에서 어떤 상징물이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한다. 경전은 빵과 포도주가 합당한 상징물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보통으로 포도주 대신에 물을 사용하고 있다. 비상시에 또는 그러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적당한 대체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. 예를 들면, 세계 이차 대전 동안에는 유럽의 후기 성도들이 때때로 감자 또는 감자 껍질을 성찬에 사용하기도 하였다. (에즈라 태프트 벤슨, Conference Report, 1952년 10월, 120쪽)

**고린도전서 11장 23~26절과 교리와 성약 27편 2절을 읽는다.**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우리가 성찬에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? 그 이유는?
- 우리는 왜 성찬을 취하는가?

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맺는 성약을 찾아보면서 **교리와 성약 20편 77절을 읽고**, 또 노트에 그것들을 열거한다.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약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-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?
- 그분의 피를 기억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?
- 성찬의 상징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는가?
-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?

성찬의 중요성에 관해 생각하고, 또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한 번 이상 하게 되는 유일한 의식이라는 점을 생각한다. **고린도전서 11장 27~31절을 읽고** 또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경고하였는지를 알아본다.

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.

**“이 상징물을 드는 것은 교회의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입니다”(구원의 교리, 2:302)**

성찬에는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취하기만 한다면, 우리가 완전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권능이 있다.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**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.**

**“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합당한 상태에 있도록 한다면, 우리는 용서를 받을 것이며, 또 영적인 치유가 우리 영혼에 찾아들 것입니다. ... 여러분은 영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느낄 것이며, 또 짐이 가벼워졌음을 느낄 것입니다. 위안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”(“성찬 성약”, New Era, 1976년 1월호, 8쪽)**

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.

**“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? 혹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”**

**“우리가 회개하여 개선하기를 바라고 회원 자격 정지나 파문 등의 신권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면,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...”**

**“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향상하기를 거부하고, 주님을**

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장은 그치게 되고 영혼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.”

**“성찬은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므로, 우리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”(Conference Report, 1989년 4월, 49~50쪽; 또는 성도의 빛, 1989년 7월호, 38쪽; 제3니파이 18:27~29 참조)**

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한다.

-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?
-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?
- 합당하게 취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?